

옛 사람 하만, 새 사람 에스더

- 복음으로 여는 에스더-

에스더 7:1-7, 에베소서 4:22-32

정윤돈 목사님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최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의무로 드리거나 긴장하지 말게 하시며 예배 시간 동안 최고 은혜 받는 시간,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최고의 행복을 이 시간에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보게 하시며 미래를 앞당겨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이 예배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발견하는 축복된 시간으로 주님 역사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속에 그대로 성령이 되게 하시며 영육간의 30, 60, 100배의 열매로 맺어지도록 주여 함께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영혼 구원을 받았다. 구원 받았으면 끝났는데 왜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기 위함이다. 자유의지와 축복이다.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이고 가뭇 유다의 생각에도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했는데, 우리는 생각과 판단을 할 때 내 중심, 세상 중심으로 할 수 있다.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우리 교단은 정확한 복음을 알지만 잘 안 된다. 야고보서에 말한 것처럼 혀가 악한 독, 사르는 불이라고 했는데 혀가 통제 되는가. 오늘도 에스더 말씀을 통해 생각, 기준, 표준, 수준이 성경적 수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수준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그걸 도전하기 위해 모였다. 조금만 믿으면 된다. 지난 주 야고보서 5:17-18 엘리야가 기도할 때 우리와 성정이 같지만 믿음을 갖고 약간만 변화되니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기도 하고 그치기도 했다.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한다. 야고보서 목상을 하는데 행위를 강조하는데 왜 신비주의자, 기적인 엘리야를 집어넣었을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는데 생각, 삶을 약간 조심히하고 복음적으로 방향을 맞춘다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는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한다.

오늘은 에스더서에서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 에스더서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 우리는 보통 70년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게 B.C.605년이다. 느헤미야 성전 회복 때까지 160년이 흐른다. 그 사이에 있는 인물이 에스더다. 에스더는 다니엘이 1차 포로로 끌려간 이후 약 120년 후의 인물이다. 왜 70년이나, 586년에 느부갓네살왕의 3차 침공에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된다. 그 후에 스톱바벨에 의해서 성전재건된 게 516년이다. 시간을 따지면 약 70년이다. 하나님의 기준은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성전이 무너졌다가 다시 완성되었을 때이다. 여러가지 1차, 2차, 3차로 돌아와도 신학자들도 70년을 어느 기준에 맞춰야 하는지 헷갈려한다. 그러나 성전이 부서짐과 재건됨이 딱 맞는다. 하나님의 기준이다. 이런 성전 재건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다. 에스더와 모르드개 같은 믿음의 사람이 모든 과정을 준비했다. 그 전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도 계속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언약을 잡고 '이 언약, 성전, 예배를 어떻게 다시 이 민족을 회복시킬까' 무시로, 24시 기도하다가 그 응답을 받게 된 것이다. 그 중에 에스더서가 나온다. 오늘 에스더서 1장에는 아하수에로 왕이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나온다. 와스디 왕후를 불렀는데 안 오니깐 부하들과 의논해서 왕후를 폐위시킨다. 왜 그렇게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느냐, 아하수에로 왕은 허브리어이고, 헬리어는 크세르크세스이다. '300'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인물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전쟁에 나간 이유가 아버지 다리오 왕이 1차 페르시아 전쟁에 갔을 때, 1차 전쟁은 그리스 원정을 하기 위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 다 죽었다. 그리스 사람들은 쳐들어오지도 몰랐는데 풍랑 때문에 죽은 거다. 2차 전쟁에서도 패하게 되는데 그게 유명한 마라톤 평원에서이다. 약 6500명 정도 밖에 안 되는 그리스 군대와 몇 만 명이 되는 페르시아 군대가 마라톤 평원에서 붙게 된 거다. 그리스 군대는 높은 지역에 있었고 좁은 지역에 있어서 그리스 사람들 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거다. 페르시아가 장군이 배를 타고 아테네로 직접 진군시켰다. 삼분의 이정도만 배를 타고 가고 삼분의 일이 남았으니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리스 군대는 이 사람들과 싸우고 가다가 아테네 지역에는 우리 가족들이 있어서 페르시아 군대가 먼저 도착하면 다 불태워 죽일 거 같아, 목숨을 걸고 싸워 이기게 된다. 그리고 방패와 창을 들고 30km를 뛰어서 도착했는데, 페르시아 군대가 온 것을 보고 포기하고 다시 돌아간다. 여기서 차이점이 있다. 페르시아 군대는 강제로, 왕을 위해서 싸우러 왔다. 그리스 사람들은 공화정, 민주정이 있

었는데 헤로도투스라는 역사가가 '역사'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 사람들은 중산층 이상이고 갈, 방패를 들고 나가 싸우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중류 이상이어야 한다. 그걸 갖추기에는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자비로 나가야 한다. 나머지 시민들은 노를 저었다. 두 배되는 페르시아 군대와 싸우는데도 그리스 사람들은 가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다. 그러나 페르시아는 127도인데 오합지졸이다. 인종도 다양하고 별로 목숨을 걸고 싸울 이유가 없어 결국 그리스가 이긴다. 바로 이것이 아하수에로 왕이 마라톤 전쟁에서 아버지 다리오 왕이 실패해서 127도의 군대를 모아 제3차 페르시아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모였던 시간이 에스더서 1장에 나오는 장면이다. 거기서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킨다. 에스더 2장은 제3차 페르시아 전쟁에서 실패하고 해전을 하기 위해 배를 가져가는데 거기서도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당시 그리스 군대와 해전에서 붙게 되는데 그걸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한다. 그리스 배는 굉장히 튼튼했고 페르시아는 많은 군대를 움직여야 하는 수송용에 불과했다. 그리스는 튼튼하게 배를 만들고 빠르게 가서 부딪히는 배를 만들었고, 페르시아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은 노예들이었다. 그리스는 목숨을 걸고 부딪치며 싸우니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다. 끝나고 돌아와서 전쟁에 지고 나니 아하수에로 왕이 절망하고 왕후도 없고 하니 후궁들을 뽑은 것이다. 결국 후궁들과 놀다가 반란이 일어나 최후를 맞이한다. 여기서 나타난 인물이 하만과 모르드개, 에스더이다. 옛 사람 아하수에로와 하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세상 사람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기 어려운 요소들이 있다. 본문에 보면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다.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사람으로 거듭나야 한다. 모르드개는 성격이 괴팍하다. 하만이 보니 문지기 주제에 하만이 지나가면 췌려본다. 하만이 열 받아서 알아보니 유대인이었다. '저놈만 죽여도 속이 안차니 저 민족을 다 죽여야겠다'한 거다. 우리는 성질을 부리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리면 대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대부분 나의 생각 때문에 한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했다. 우리는 귀담아 듣고 계속 도전해야 한다. 오늘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라. 생각도 마음에 따라서 걸려진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겠다. 가정 가문을 살려야겠다. 세계복음화 해야겠다.' 명절에 가서 '일이 피곤하다, 우상 가문에 있으니 복을 전해서 박살내야겠다' 하면 싸운다. 우상 숭배하면 어려우니 내가 빛을 비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하는 이유를 알려줘서, 복음의 가문으로 만들어야겠다고 마음먹으면 생각도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질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은 생각으로 들어온다. 귀로 듣고, 눈으로 봐서 생각도 바꾸시고 마음의 자세, 심령을 새롭게 하기를 축원한다. 새로운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은혜가 다르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살리려 갈 수 있다. 내 속이 복잡하면 은혜가 안 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전적인 은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 생각은 깨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야지' 이걸 깨닫는 것이다. 내 생각을 고수하면 100년 신앙생활해도 바뀌지 않는다. 여러분 고난, 문제 있다면 생각, 기준 바꾸기 위해서 주신 줄 믿는다. 나에게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 쓰이기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1. 옛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자신과 나라까지 멸망시킨 옛 틀의 두 사람.

1) 아하수에로 왕

그리스 원정에 실패한 아버지의 한을 풀다가 멸망을 자초했다. 우리의 기준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내 한을 풀는 게 되면 안 된다. 결국 망한다. 이미 상태가 망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복음을 위해 살아야지. 하면 이미 성공자인 줄 믿으시기 바란다. 나머지 응답은 따라온다. 이미 받은 큰 응답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 부리다가 결국 멸망했다.

① 에스더1:1 아하수에로는 인도로 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었다. 또 아하수에로는 자기 과시, 허영, 교만의 영적문제도 망했다. 과시, 허영, 교만을 한 마디로 '잔치'다. 6개월간 잔치를 했다. 에스더는 후궁에서 잔치를 벌여서 하만과 아하수에로를 부른다. 고관대장이 많은 곳에서 하만을 말하면 모르드개가 나쁘다고 할 수 있다. 에스더는 지혜롭게 하만과 아하수에로만 집으로 부른다. 아하수에로가 '너가 원하는 게 무엇이야, 이 나라 절반까지도 주겠다.' 한다. '나와 내 생명과 우리 백성을 구원해주세요' 한다. 노예로 팔아버렸으면 이 말을 안 한다고 한다. 이 악한 하만이라고 에스더가 지적하며 아주 적절한 타임이다. 대부분은 조급해서 되야 될 응답도 못 받는다. 여러분 생각과 태도, 뇌를 바꾸시길 축원한다. 우리는 성령충만으로 바뀌어야 한다. 잔치 인생은 망한다. 노래방 가고, 술 먹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길 바란다. 행복의 기준을 바꾸고, 체질을 바꿔라. 결국 이렇게 된다. 나는 심한 마약 중독 환자를 상담했는데 망한 것을 보았다. 누가 그랬는가? 창세기3장에서 우리를 망하게 했던 사탄이 '선악과를 따먹어라, 눈이 밝아지고 지혜로워지고 재미있을꺼야' 했을 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문제가 생긴다. 아하수에로 왕도 허영과 과시와 교만이 자신을 망친 것이다. 우리가 조금 높은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인가. 세상의 권력과 자리는 다 허망한 것이다. 오직 복음이 최고인 줄 믿으시기 바란다. 여러분 이미 성공자다. 다른 것을 바랄 필요도 없다. 우리가 받은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거기에 우리의

중심과 초점을 맞춰야 한다.

② 그는 조금의 성격 때문에 계속 실수를 하다가 결국은 자포자기 하고 타락에 빠져 살다가 암살당하는 불행한 최후를 맞게 된다. 와스디 왕후를 순간적으로 폐위시켰다. 전쟁이 끝나고 와서 생각해보니 자신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에스더2:1에 '그 후에 아하수세로 왕의 노가 그치매 혈압이 조금 내려가니 생각하는 거다.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실수 다하고 나중에 후회하고 목상하지 말고 문제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조용히 묻고 기도하라. 에스더3:1에도 사람을 쓰는 게 즉흥적이다. '그 후에 아하수세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돌이켜보니 3차 전쟁 실패도 하만 때문인 것 같다.

2) 하만

① 교만한 성격. 하만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참지를 못한다. 에스더3:5 '하만이 모르드개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음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하만은 높은 지위에 있고 밑에 있는 문지기 모르드개게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자존심 상한 거다. 쓸데없는 자존심이 상한 것이다. 우리는 자존심이 아닌 하나님 자녀로서 자긍심,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누가 인사를 하고 안하고로 성격이 뒤집어지지 않는다. 어떤 문제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다. 작은 것에 우리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면 안 된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도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자기가 뒤집어 진 거다. 매우 노하더니. 야고보서 말씀은 안 읽어서 그렇다.(웃음)

② 자기의 나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물질로 다른 사람을 시려는 사람이었다.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기 위해서 왕에게 뇌물까지 바쳤던 사람이다. 3차 페르시아 전쟁에서 진 이후가 바로 이 증거다. 에스더3:9 "왕이 옹계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온 일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는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이 돈이 어디서 났을까. 전쟁하면서 결국 뇌물을 받아먹은 것이다. 왕의 마음까지도 돈을 쓴 것이다. 명절에 누구에게 선물을 하는 것은 좋다. 어떤 사람은 사업의 이익을 위해서 뇌물을 쓰기도 한다. 그런 악한 것이다.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공무원들이 뇌물을 잘 받을 때는 일을 하기 편했다고 한다. 선진국이 되기 참 멀었다. 일본에 계신 외숙모에게 "일을 하기 어려우시죠?" 라고 질문하니 일본 공무원들은 자기들이 알려주기 위해 직원처럼 알려준다고 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야한다. 정말로 오늘 기도처럼 주인 행세가 아니고 주인의 식을 가져야 한다. 이 사회가 오래 병들어있다. 현장에 램넌트들이 들어가서 친절한 모습으로 거듭나길 축원한다.

③ 하만은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은 고소하고 고발하고 죽이려는 사람이었다. 에스더3:6 "그들이 모르드개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리므로 하만이 모르드개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세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개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 사람이 미우면 그 가족들도 다 미워해야 하는가. 하만이 이런 성격이었다. 그러나 결국 하만은 자기가 만든 장대에 매달려 처형당했다. 에스더 7:10 모르드개를 매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이 달렸다.

④ 자신이 살기 위해서 비굴하게 에스더에게 무릎 꿇고 빌다가 왕이 나갔다가 와서 봤다. 왕후를 강간하려는 것으로 알고 '하만의 머리를 찌터라고 했다. 결국 목을 매달게 되었다.

2. 두 명의 새 사람을 만나게 된다.

1) 모르드개

① 믿음의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긍심, 자부심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만에게 절 안하지 않았고 교만해서가 아니다. 우리는 뒷사람에게 잘 인사해야 한다. 그러나 하만은 그런 모습이 아니다.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할 때 사람들은 다 거기에 고개 숙이고 하만에게 아무를 떠는 것이다. 모르드개는 보기 싫었던 거다. 그런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모르드개가 겸손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녹였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우리의 중심이 바르면 우리의 악한 부분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귀하게 써 주실 줄 믿는다.

②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된 사람이었다. 우연히 왕이 기록을 읽다가 모르드개의 공로를 알게 되었고, 모르드개는 자신을 죽이려던 하만을 대신하여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 내 일의 중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하면 어느 날 빛을 보게 된다. 모르드개는 성실한 문지기였다. 그 일을 열심히 하다가 에스더6:2에 아하수세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개게 발견한다. 그 내용이 왕실 역사 일기에 있었다. 아하수세로 왕이 잠이 안와 읽다가 모르드개의 사건을 보게 된다. 음모를 고발해서 해결해 상을 주었다고 물었다. 아니라고 하자 하만에게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었다. 하만은 자기인 줄 알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에 태워서, 왕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신하가 말을 끌면서 왕 같이 위대하다' 하며 돌아다니라고 했다. 그러자 왕이 '네가 해'라고 했다. 우리의 입장에서 그 자리에서 조금만 충실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연스럽게 어느 시간표에 놓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 에스더

이주 중요한 내용이며 특히 청년들이 잘 알아야 한다. 결혼과 이성교제이다. 에스더는 결혼과 이성교제를 나의 민족과 정욕을 위해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결혼했다. '내가 남자친구 사귀고 결혼하는데 아빠가 무슨 관섭이야, 목사님이 무슨 관섭이야' 하지마라. 여러분 결혼관도 하나님 앞에서 해라. 믿음의 기준으로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나의 가장 귀중한 건데, 남자친구 사귀고 결혼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다. 버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은 달라고 하셨다. 나의 성질, 자존심, 지위, 자녀, 물질일 수 있다. 하나님은 그걸 달라고 하신다. 에스더가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뽑혔겠는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 모르드개는 자신의 부모님도 아니었고 사촌 오빠였는데 다락방 사역자였다. 나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었다. 에스더에게 '너가 만약 왕 앞에 나가지 않으면 너와 너의 아버지의 가정은 망할 것이다' 했다. 에스더도 가정이 있었지만 에스더는 말씀의 은혜를 주었던 메시지를 더 소중히 여겼다. 에스더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영적인 사람이었다. 에스더4:16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되 밤낮 삼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기도의 비밀을 알았다. 그리고 에스더는 복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신중하고 지혜로운 여인이었다. 에스더는 이런 상황을 왕에게 바로 말할 수 있었지만 잔치에 왕과 하만을 초대한다. 급하게 이야기했으면 왕이 하만에게 사정을 물었을 것이다. 에스더가 다시 기회를 주고 왕과 하만만 초청한다. 9가지 포인트를 잘 본 것이다. 살리는 지혜, 지키는 지혜를 갖기를 축원한다. 우리는 세상,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중함과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

결론 우리들이 에스더를 통해서 발견할 복음적인 CVDIP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1. 언약 전달의 중요성

모르드개와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스블라벨,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언약을 전달했다. 에스라는 한 번도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다. 그런데 성경의 모든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 되었다.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여 언약전달을 제대로 했다는 거다. 후대에게 말씀 전달 교육을 제대로 했다는 거다. 우리 램넌트들은 어른들이 준 것을 소중히 여겨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라.

2. 비전

우리의 비전은 페르시아 아하수세로 왕처럼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 세계 237개를 살리는 것이고 이것이 비전이다. 우리는 로마처럼 하지 않고 로마도 살리고 페르시아도 살리는 거다.

3. 꿈

우리의 구체적 꿈은 모든 중직자와 램넌트들을 모르드개와 에스더처럼 되도록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다. 어렵지 않다. 약간만 빛을 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따르면 된다. 약간만 바뀌면 된다. 너무 오랫동안 바뀌지 않으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체질이다.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4. 기도

우리는 에스더처럼 함께하는 기도의 능력을 믿고 체험해야 한다. 한 사람이면 다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왜 저 사람은 안 돼, 왜 이렇게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누구는 안 돼, 우리 집안은 왜 안 돼 이렇게 하지 마라. 여러분이 에스더처럼 기도하는 여인이 되고 기도하는 모르드개가 되어서.

5. 실천

에스더는 이스라엘이 몰살될 수 있는 상황에서 부림절이라는 작품을 만들었다. 이번 명절을 통해서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작품을 만들어라. 우리 교단에서는 한 기층과 함께하며 램넌트데이, WRC, 세계선교대회, 중직자대회, 산업인대회 이런 것들을 하나씩 우리의 부림절로 만들고 있다. '나는 아무 것도 한 게 없다' 아니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곡도 나오고 작품도 나오고 선교대회도 하고 다 할 수 있다. 함께 작품을 만드는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오직 예수를 세상에 전하는 복음 공동체가 될 줄 믿는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이지만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세계복음화를 위한 언약과 비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지만 우리가 갱신되고 변화될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옛 틀을 벗어 버리고 마음과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가정 가문을 살리게 하시고 지금 고통당하고 있고 지금 여러가지 어려움을 당해 사면초가에 있고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사람도 너무 많고, 또 세상이 너무 좋아서 착각에 빠져서 이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 나가서 먼저 오직 예수로 행복한 모습으로, 현장에 나가서 그들을 모두 살릴 수 있는 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